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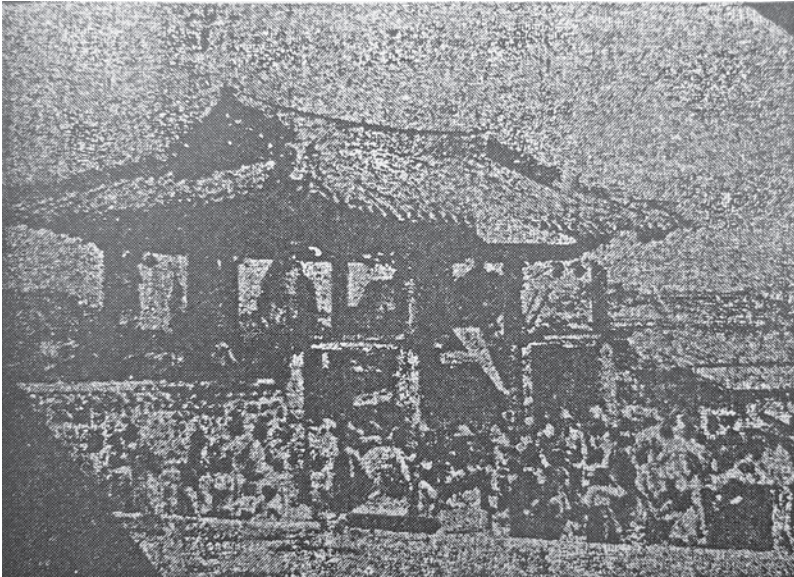
5. 사또의 호령 올리던 동헌(東軒) 터⁶⁾

◎ 터전은 (목사) 최해산(崔海山)이 6백칸 지어

“바로 얼마 전까지 제주경찰서(濟州警察署)가 있다 나간 자리, 그 전에는 도경찰국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도청(道廳)이 있었던 자리…”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곳이 지금 제주우체국 뒤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제주시 삼도2동 43번지 일대의 넓은 땅이다.

6) 『한라일보』 제24호 (1989. 0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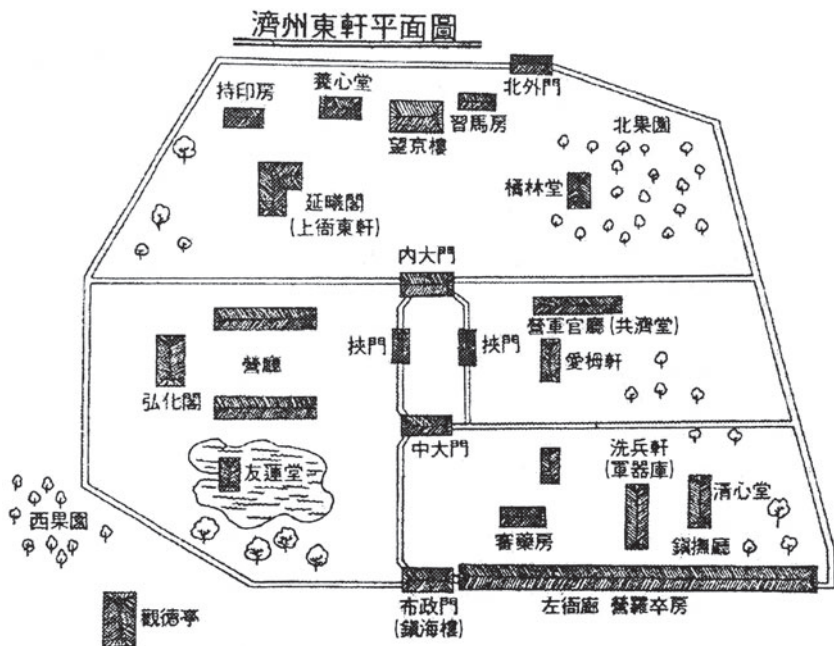


관덕정(觀德亭) 동북 동헌(東軒)으로 들어서는 대문이었던 포정문(布政門) | 한때 진해루(鎭海樓)라고도 했다. 지금은 하마비(下馬碑)와 주춧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정사(政事)의 총본산(總本山)

최근 제주시가 이 땅을 공원지구로 결정하고 관덕공원(觀德公園)으로 추진 중에 있어 잊혔던 사람들도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곳이기도 하다. 바로 이 일대 6천평에 달하는 땅이 일제 36년간은 경찰서장을 겸직 한 도사(島司)가 버티고 앉아 군림하던 도청(島廳)이 있었고 조선시대 5백년 동안은 3백 사포(叟使)가 3권을 한손에 쥐고 호령하던 동헌(東軒)이 있던 자리다. 그보다 먼저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고려의 수령(守令)이 정사를 맡아보던 정청이 있던 곳이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1105년 탐라(耽羅)가 고려에 병합되어 고려 조정



「제주동헌평면도(濟州東軒平面圖)」 이 도면은 여러 기록 문헌을 토대로 필자가 조선시대 중엽에 제주목(濟州牧) 동헌(東軒)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건물들을 배치해 본 것이다. 완벽한 도면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이 파견한 관리가 정사를 맡아보면서부터 1948년 4·3 사건 당시 제주 도청이 화재로 소실돼 버릴 때까지 적어도 8백40여 년 동안 제주도의 정치를 도맡아 하던 총본산(總本山)이요, 관1번지라고 할 것이다.

지금도 이곳을 지나려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마비(下馬碑)다. 본래 이곳에는 포정문(布政門)이 있던 곳으로 이곳을 지나려면 목사보다 품계가 낮은 사람은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 “수령이하개하마(守令以下皆下馬)”라고 새긴 이 비는 1834년(순조 34) 목사 한응호(韓應浩)가 세운 것이다.

이곳에 있던 포정사(布政司) 문은 동헌으로 들어서는 외대문(外大門)으



1 제주목관아 하마비(제주시 삼도2동) |
 '수령이하개하마'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수령 이하 모든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 걸어서 관아 출입을 명한 비이다. 1834년 한응호 목사가 예전의 비를 대체하여 세움.

로 이층 누각에는 종과 북을 매달아 아침저녁으로 성문을 여닫을 때 사용했다.

이 문루를 “진해루(鎭海樓)”라고 했는데 1699년(숙종 25) 목사 남지훈(南至薰)이 개건을 하면서 “탐라포정사(耽羅布政司)”라고 개편한 뒤로는 포정문으로 통하게 되었다. 이 문루는 일제 초까지도 남아 있었으나 일제 때 도청(島廳) 청사를 건립하면서 철거해 버렸다.

이 터전 일대를 재정비하여 조선시대 5백년에 걸치는 관가의 총본

산으로 건설한 사람은 세종(世宗) 때의 목사 최해산(崔海山)이었다. 고득중(高得宗)의 「홍화각기(弘化閣記)」를 보면 그가 도입할 당시부터 관아가 아주 낡아 무너질 위험이 있었지만 큰 역사가 되어 주저했는데 때마침 영내에 불이나 기거할 곳마저 없어져 버렸다. 그는 도입하던 이듬해인 1435년부터 2년에 걸쳐 홍화각을 비롯하여 하나하나 필요한 부속건물을 건립했다.

고비(古碑)가 역사를 증언(證言)

이때 완성한 관아는 목사가 정사를 보는 정청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 포정문(제주시 삼도2동) ▶ 동헌으로 들어가는 외대문으로 제주목관아의 정문이다. 진해루로 불리다가 1699년 남지훈 목사가 개건하며 탐라포정사로 바꾸었다.

두 개의 행랑채를 지어 육조(六曹) 관방을 배치하고 그 서쪽으로 다시 3동을 지어 찬정당(贊政堂), 마굿간, 영고(營庫), 주방, 화약고(火藥庫), 군기소(軍旗所), 문루(門樓) 등 여러 시설을 갖추었는데 총 2백6칸⁷⁾이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을 불지 않도록 별채로 지어 화재예방에도 대비했다.

그 뒤로 건물이 노후할 때마다 여러 목사가 수리하고 또 좌우위랑(左右衛廊)⁸⁾ [1511년 목사 김석철(金錫哲) 이축(移築)] 망경루(望京樓)[1556년 목사 김수문(金秀文) 창건] 등 여러 채의 건물을 더 짓기도 하였지만 이때의 기틀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필자는 봄 햇빛이 내리쬐는 어느 날 오후 사또의 호령도 잠이 든 이 말없는 옛터를 혼자서 찾아보았다.

7) 신문에는 6백 6칸이라 되어 있는데 필자가 2백 6칸이라 수정 표시함.

8) 신문에는 좌우아랑(左右衙廊)으로 되어 있다. 좌우위랑(左右衛廊)으로 바로 잡음.



제주목관아 목사 비석군(제주시 삼도2동) | 고종 때의 영의정 이최응비와 제주목사 양헌수비를 비롯 11기가 서 있다. 예전에는 6기만 있었다가 2003년 각지의 목사비 5기를 일괄 목관아 경내로 옮겨 오며 현재 11기가 되었다.

경내로 들어서면서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이 왼쪽으로 가지런히 서있는 고비(古碑)들이다. 대원군(大院君)의 친형인 영상(領相) 이최응(李最應)의 영세불망비를 비롯하여 목사 백희수(白希洙), 정기원(鄭岐源), 양헌수(梁憲洙), 조희순(趙義純)과 판관(判官) 강재의(姜在毅)의 기념비였다. 말없는 비들이 굳이 옛 사적(史蹟)이 있었던 것을 일깨워 준다고나 할까 내력을 모르고 들어선 사람이면 누구도 이곳이 옛 동헌 터였다고 믿어지지 않을 것 같다.

40년 동안 경찰에서 사용해온 낡은 건물들이 여러 채 잡초와 더불어 버려진 채 음산하게 시야를 가릴 뿐 옛것을 찾기가 어렵다. 연희각(延禧閣)이 있던 뒤켠으로 생각되는 곳에 5백년과 2백년쯤 돼 보이는 팽나무 두 그루를 비롯하여 백년쯤 되었으리라 생각되는 담팔수 나무 그리

고 녹나무 곶술 등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살풍경한 모습을 다소 달래 주고 있었다.

많은 사연 안고...

무엇인가 흔적이라도 없을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주춧돌을 여러 개 발견할 수가 있었다. 직경이 40~50cm에 높이 20~30cm에서 1백cm까지 될 만한 것 10여 기를 찾아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연회각 터로 보이는 구 보건소 자리가 있던 곳에는 아직도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높이 50cm쯤의 기단석축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그밖에 눈여겨볼 아무 것도 없는 허무한 빈터였지만 그 구석구석에서 무엇인가 들리는 것만 같아 필자는 한참을 헤매면서 발을 돌리지 못했다. 5백년을 거쳐 간 3백 사또의 호령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차례 물려들었던 군중들의 노여운 함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이곳만큼 많은 사연을 안고 잠든 사적도 없을 것 같다.